

유아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종사상지위별 자녀돌보기 시간사용과 유료 자녀양육서비스 선택

Mothers' Time Use in Child Care and Market Child Care Services Depending on Their Employment Status

차성란*

대전대학교 아동벤처산업학과

Cha, Sung Lan

Dept. of Child Venture Business, Daejeon Univ.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mothers' work status on time use in child care and use of market child care services. There were two major questions: Do self-employed (and family worker without being paid) mothers have a flexible work schedule and so can they care her child(ren) well? If it is true, is the work status as self-employee related to non-market child care services? To answer these questions, 1,196 samples were selected from the Time Use Data of 1999, which had been administer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mother who is **family workers without being paid** made time to care children frequently more than wage earners. Second,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mothers' work status was one of the important variables to explain child care activity frequency. Third, among categories of child caring ('physical caring,' 'non-physical caring,' and 'caring of the others'), mothers spent more frequently in 'caring of the others,' and had higher probability to use market child care services. **But the more frequently a mother made time in 'non-physical caring' for her child, the lower probability to choose market child care services.**

In conclusion, it was certain that self-employed mothers benefit from a flexible time schedule at work places. But the relationship of child care activity frequency with use of market child care services was inconsistent.

Key Words : child care services, flexible work schedule, self-employed

I. 문제의 제기

최근 여성취업률은 미혼여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취업은 M자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높은 비율의 미혼여성 취업률이 결혼 및 출산을 시점으로 감소하다가 자녀양육의 부담이 완화되는 중년기에 재취업을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제 취업은 대부분 여성에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선택적 결정이기보다 독립된 경제생활을 위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필연적 결정이다.

하지만 기혼취업여성에게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정영역

에서의 일과 직장업무의 이중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한유미, 권정윤,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은 구조적, 과정적, 서비스 측면 모두에서 스웨덴 부모에 비해 만족수준이 낮으며, 국가의 보육비 부담률이 83%인 스웨덴과 비교할 때 30%의 지원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육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육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양육을 맡기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경제적 불만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 할 것이다.

이같은 경제적 부담은 차치하고라도 Belsky와

* Corresponding author: Sung Lan Cha
Tel: 042) 280-2474, Fax: 042) 283-7172
E-mail: slcha@dju.ac.kr

Enggebeen(1991)은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취업하는 경우 자녀의 인지적 능력 및 행동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Bianchi(2000)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량 자체를 자녀양육의 중요요소로 문제삼고 있어 자녀보육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취업모들을 어렵게 한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는 취업여성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일, 야간, 시간제 등의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확대해가고 있다(유희정, 2003).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도 아직은 보육지원시스템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으며, 기혼여성들의 자녀양육 부담은 여전히 개별가정의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근무시간의 융통성을 갖는 것은 자녀양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자유 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사무실 등의 근무방식은 기혼여성들의 시간사용을 융통성 있게 해주는 여러 대안들이다. 그러나 이 대안들은 피고용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근무방식이 되지 못한다. 기업에서 제시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므로 대부분 기혼취업여성들은 융통성 있는 근무방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자영업은 고용주로서 시간적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그러나 자녀보육을 위한 시간융통성 확보를 위해 자영업 창업을 결정하기에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자영업 창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과 사업경험, 경영환경의 고려 등 외부 환경적 조건들이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융통성이 자녀돌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다 해도 자영업종사자로서의 선택은 보육 이외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모성이데올로기 그리고 시간적 융통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직업적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지만 자영업종사자의 긴 근무시간, 재택형태인 경우 가정과 일 사이의 영역 경계 투과성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 등 반대의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종사상지위, 특히 자영업이나 무급 가족종사자로서의 지위가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융통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녀양육의 과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있지 못한 취업모에게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형태는 단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육방법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보다 만족스런 자녀양육을 위해 유료로 제공되는 자녀양육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려는 정책보다는 자녀양육을 부모가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이다(Joesch & Hiedemann, 2002; Kuhlthau & Mason, 1996).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취업모의 종사상지위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들을 몇편 찾아볼 수 있다. 재택사업(Heck et al., 1992 a) 또는 가족기업가정에서의 자녀돌보기 서비스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Avery et al., 2000; Haynes et al., 1999), 자녀돌보기를 위한 선택으로서 자영업/자녀양육서비스직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Connolly, 1992), 시간제 및 전일제 자영업여성의 유급서비스구매에 관한 연구(Fitzgerald et al., 2001) 등이 있다.

국내의 관련연구로는 유료보육서비스 선택(김순미 외, 2000), 보육기관유형 선택(김지경, 2004), 보육비지출(김지경, 2005)에 관한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종사자를 포함하여 종사상지위와 자녀돌보기와의 구체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은 없었다. 국내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의 특성은 외국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자영업을 포함한 종사상 지위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사이의 관계를 우리의 환경조건 하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업이 시간적 융통성을 허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린 자녀의 양육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들이 종사상지위에 따라 시간적 융통성을 이용한 자녀돌보기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유료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직업영역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돌보기에서의 시간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직업적 대안으로 자영업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돌보기를 위한 직업대안으로서의 자영업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직업적 선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며 최적의 선택을 찾

아가는 과정에 자녀양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육비 지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은 시장의 유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으나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서 남편과 부인이 서로 교대근무를 하거나(Connelly, 1992) 근무시간을 조절하며(Haynes, 1997)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취업을 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Carusso, 1992).

여성들은 자신이 일차적인 자녀양육 담당자이며 가정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비교할 때 가정관리상의 요구나 자녀양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업적인 근로방식을 조절하는 경향이 더 크다. 자영업을 택한다거나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을 선택하는 것은 가정생활과 직업적인 요구를 병행하기 위해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를 고려한 적응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Cattan, 1991; Connelly, 1992; Folk & Beller, 1993; Heck et al., 1992 a; Rowe et al., 1995).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융통성이며, 이러한 점은 가족과 직업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Green & Cohen, 1995; Salganicoff, 1990). Salganicoff(1990)는 이러한 특성을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삶이란 하위체계 간의 경계가 명확치 않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중복된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영업자의 시간적 융통성, 공간적 인접성은 일과 가족 사이의 경계 투과를 용이하게 해주는 일명 가족친화적 직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환경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사업수익과 질 높은 자녀양육이라는 두 영역의 산출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Haynes et al., 1999).

Tausig과 Fenwick(2001)의 연구에 의하면 고용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이 융통성있는 근무시간을 택할 수 있다고 인지할 때 일과 가정 사이의 불균형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 이러한 예측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자영업이 지니는 시간적 융통성을 활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MacPherson(1988, Connelly, 1992에서 재인용)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영업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기는 이유로서 자녀양육비용을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결과 0-5세 사이의 자녀수는 자영업 선택과 관련이 없었으나 6-13세 사이의 자녀수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양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아지는 6세 이상이 되면 유료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업과 가

사를 병행할 수 있는 것이다.

DeCarlo and Lyons의 보고에 의하면 자영업 여성은 창업단계에서 주당 평균 45시간 일해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가족원들의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전일제나 시간제 자영업가정에서는 외부의 유급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Longstreth et al., 1987에서 재인용). 자영업여성들은 가사노동을 위해 유급고용인을 사용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Fitzgerald 외(2001)의 연구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한 범주로서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주부는 자녀양육서비스에 있어 미취업주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가족기업의 경제투과성이 가족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주부는 시간융통성을 가지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론 연계시키거나 연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서비스 구매를 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Haynes et al., 1999).

그러나 Heck 외(1992b)는 재택형태의 직업선택에서 자녀돌보기는 가장 중요한 동기임은 분명하지만 재택근무가 유급의 보육서비스 구매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것은 아니며 다소 필요성이 감소되는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자영업가정의 체계적 특성은 자영업자의 시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일과 가정체계의 두 체계 사이의 경계의 모호함은 일-가정 영역 사이의 전이(spill-over)를 유발하며, 사업영역에서의 긴 근무시간으로 인해 자녀돌보기에 필요한 절대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Loscocco와 Robinson(1991)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업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사의 책임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Danes 외(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생활의 주 관리자는 기업부문 관리자에 비해 일-가족 간 긴장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그러한 긴장은 사업상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무급종사자인 경우 일-가정 영역 사이의 갈등해결 방식은 자영업자와 다소 다를 것이다.

첫째, 자영업주의 부인으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자영업선택 의사결정에 아내가 관여하는 정도에는 각 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내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내 단독의 자영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자영업 선택에 자녀양육이 고려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녀양육이 자영업 선택에 선행변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대부분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종사상지위를 지니는 자영업주의 아내는 가정관리자의 책임과 가계의 주 소득원이 되는 자영업경영에 대한 책임, 내지는 내조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경우 가정영역과 사업영역에서의 이중역할 수행에 따른 시간 사용은 직장근무자나 재택근무자와 상이할 것이다. 직장근무자의 경우 동일한 이중역할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과 비근무시간의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재택근무자는 업무와 가사노동시간이 중복되어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비해 남편의 자영업경영에 관여하는 아내는 업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2. 관련변인

자녀의 연령은 신체돌보기, 비신체돌보기 등에 사용할 시간을 요구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져 왔다. Christensen(1988)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양육 서비스 직종의 자영업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자영업/비자녀양육서비스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Connelly(1992)의 연구결과에서도 매우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영업/자녀양육서비스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녀의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영업/자녀양육서비스직 선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특히 자녀연령이 3-5세, 6-12세인 집단에서 비자영업보다는 자영업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여 자녀양육서비스직종에서의 자영업 선택이 자녀돌보기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건형성을 위한 것임을 말해주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Heck et al., 1992a; Kuhlthau & Mason, 1996) 또는 친척 이외의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양육을 정기적으로 맡길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Joesch & Hiedemann, 2002). 그리고 자녀가 학령기에 가까워질수록 어머니 이외의 양육자에게 맡길 가능성은 높아지지만(Kuhlthau & Mason, 1996), 자녀의 연령이 11-12세에 이르르면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성은 낮아졌다(Heck et al., 1992 a).

이상에서 살펴보면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자영업/자녀양육서비스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 때 자영업은 자녀돌보기를 가능하도록 시간적 융통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자녀돌보기에 요구되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자영업종사

기혼여성이 가사노동 이외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자녀가 어리지만 직업과 양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자영업/자녀양육서비스직종의 선택은 종사상지위와 직종의 최적조합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으로 어머니의 직접 양육에 대한 선호, 그리고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적 융통성이 허용되는 근무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도 감소하며 어머니의 직접 양육에 대한 선호도 낮아져 자영업이지만 비자녀양육서비스 직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수준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Avery et al, 2000; Kuhlthau & Mason, 1996).

Connelly(1992)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직보다는 비자영업/비자녀양육서비스직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일-가정 균형감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ausig & Fenwick, 2001).

Blau와 Robins(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무료보다는 유료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경제적 능력은 시장서비스 구매능력과 매우 높은 관련성(Kuhlthau & Mason, 1996)이 있음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돌보기를 위해 친척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Heck et al., 1992 a; Kuhlthau & Mason, 1996)은 쉽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itzgerald 외(2001) 역시 소득은 자영업자의 사업영역과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과도한 업무요구, 시간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부서비스 구매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Brandon(1999)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소득은 자녀돌보기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어머니의 구매능력과 비임금소득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분리하지 않고 공동유지하는 가계에서는 자녀돌보기 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남편의 소득이 있는 기혼 여성들은 좀 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영업업을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onnelly, 1992). 이는 시간적 융통성 확보를 위해 자영업선택을 하고자 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원의 여부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Kuhlthau와 Mason(1996)의 연구결과 근무시간은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근로시간이 매일, 매주 다른지, 근로시간이 주야간에 변동이 있는지, 가정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지 하는 것을 융통성의 기준으로 측정한 허경옥(1994)의 연구에서 기혼의 남편과 부인의 시간융통성은 아버지의 자녀양육 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가족기업 근무자에 비해 가족기업에서 근무하는 가정관리자(Avery et al., 2000), 그리고 자영업자는 외부의 자녀돌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았다(Heck et al., 1992 a). 가족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주부는 자녀양육 서비스 구매에 있어 미취업주부와 다르지 않았다(Haynes et al., 1999). 그러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녀돌보기 서비스 이용가능성이 높아졌다(Heck et al., 1992 a).

한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Tausig과 Fenwick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융통성있는 근무시간 자체가 시간의 구속성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보다는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인지할 때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전일제 취업자는 유료서비스 지불 가능성이 높으며(Hofferth et al., 1991), 시간제 취업자는 부모의 도움을 더 받는다(Presser, 1986)는 연구결과에서 임금근로자는 전자에 무급가족종사자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나타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융통성 활용에 차이가 있는가?

임금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는데 비해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무시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시간적인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어린 자녀의 돌보기를 위해 어머니가 이러한 융통성을 활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 변인들의 자녀돌보기 시간융통성 활용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종사상지위가 자녀돌보기 활동 빈도, 즉 세 영역에서의 자녀돌보기 시간융통성 활용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시간융통성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경제적 변인과 종사상지위 변인을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독립적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유료양육서비스 이용 유무에 차이가 있는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한 시간적 융통성을 활용한다면 이는 유료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시간적 융통성이 높은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는 유료서비스를 덜 이용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제 변인들의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종사상지위 및 시간융통성 활용이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 이용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 유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인과 종사상지위, 시간융통성 활용 변인을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독립적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통계청의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만 5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부부가정으로 제한하여, 총 1,196 사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분산분석, 선형회귀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3.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

분석에 사용한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응답자가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자기기입법에 의거하여 직접 기록한 것이다. 조사는 평일 중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자녀돌보기는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누어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등), 비신체적 돌보기(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녀돌보기에서의 시간융통성 활용(이하 시간융통성)은 하루 중 신체적 돌보기, 비신체적 돌보기, 기타돌보기 각 영역별로 단일 활동의 횟수와 동시적으로 수행되는 자녀돌보기 활동의 횟수를 합하였다. 최종적으로 첫날과 둘째날의 활동횟수를 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 고용주는 시간사용에서 다른 집단과 매우 상이한 조건에 있어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였

다. 고용주는 사업체 경영지속년수, 업무를 분담할 직원 유무 및 직원수 등의 기업환경조건이 노동조건에 영향(Fitzgerald et al., 2001)을 미치며 따라서 자녀양육에 사용가능한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서비스 구매능력을 반영해주는 소득변인은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변수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가계의 경제상태를 직접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전혀 없어 주택소유여부를 영향변수로 고려하였다. 다만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주택구매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시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덧붙여둔다.

자녀의 연령, 자녀수 등은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양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생활시간 자료는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 중 유료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 한해 첫째부터 셋째 자녀의 연령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유료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모형에서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는 변인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96)

연속형 변수	평균 (표준편차)
어머니 연령(세)	31.80 (3.78)
교육수준(초등=1, 중=2, 고등=3, 전문대=4, 대학교=5, 대학원=6)	3.29 (0.96)
근무시간(시간)	45.48(22.04)
첫 자녀연령(유료보육서비스이용집단)*	4.02 (1.47)
둘째자녀연령(유료보육서비스이용집단)*	2.90 (1.44)
셋째자녀연령(유료보육서비스이용집단)*	2.40 (1.52)
범주형 및 가변수	빈도 (백분율)
주택소유 여부(1= 자가)	562 (47.0)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674 (56.4)
자영업자	197 (16.5)
무급가족종사자	325 (27.2)
직업	
관리자 및 전문가	174 (14.5)
사무직	177 (14.8)
서비스, 판매직	478 (40.0)
농업 및 기능, 조립직	221 (18.5)
단순노무직	146 (12.2)

* 원자료는 유료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한해 첫째, 둘째, 셋째 자녀연령 자료가 조사되어 있어 자녀의 평균연령은 유료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만의 첫째, 둘째, 셋째 자녀 평균연령임.

본 조사에서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이 자녀양육을 위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첫 자녀의 경우 55.2%로서 이용하지 않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수는 파악되지 않으며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수 1,196가구 중 둘째 자녀돌보기를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04%였다. 셋째 자녀의 경우 전체 가구수 기준 0.4%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같은 자료구조로 인해 이후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녀돌보기 및 유료서비스 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첫 자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종사상 지위별 자녀돌보기에 관련된 시간용통성 활용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용통성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표 3)를 하였다. 신체돌보기의 경우 단일활동 그리고 단일활동과 동시활동을 합한 전체 활동에서 모두 어머니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금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에 비해 무급종사자 집단은 자녀의 신체돌보기 활동빈도가 높게 나타나 시간용통성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신체돌보기의 경우도 역시 단일활동과 단일 및 동시활동의 합인 전체활동 빈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급종사자 집단은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집단에 비해 자녀의 비신체돌보기 빈도가 높아 시간용통성을 높은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타돌보기의 경우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돌보기 시간사용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돌보기 활동 전체를 볼 때 단일활동 및 단일활동과 동시활동을 합한 전체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무급종사자 집단은 임금근로자 집단 및 자영업자 집단에 비해 자녀돌보기 활동을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어 시간용통성을 높은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표 2> 유료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여부	빈도(백분율)		
	첫째	둘째	셋째
이용	660(55.2)	144(12.04)	5 (0.4)
이용안함	536(44.8)	-	-
결측값		1,052(87.96)*	1,191(99.6)*
계	1,196(100.0)		

* 둘째, 셋째 자녀수는 별도로 조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둘째, 셋째 자녀수는 파악되지 않으며 결측값에 포함되어 있음.

〈표 3〉 종사상 지위에 따른 첫 자녀 돌보기 빈도 차이

(N=1,196)

집단		단일활동		동시활동		전체(단일+동시)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신체돌보기	임금근로(674)	1.70	A	0.09	A	1.792.07 2.78	A
	자영업 (197)	1.91	A	0.16	A		A
	무급종사(325)	2.62	B	0.16	A		B
	F 값	26.53***		3.70*		25.76***	
비신체돌보기	임금근로(674)	0.58	A	0.10		0.68	A
	자영업 (197)	0.61	A	0.11		0.73	A
	무급종사(325)	0.85	B	0.11		0.96	B
	F 값	11.41***		0.08		9.14***	
기타돌보기	임금근로(674)	0.37		0.02		0.39	
	자영업 (197)	0.39		0.01		0.40	
	무급종사(325)	0.45		0.02		0.47	
	F 값	1.82		0.66		1.75	
자녀돌보기 전체	임금근로(674)	5.30	A	0.43		5.74	A
	자영업 (197)	5.81	A	0.57		6.39	A
	무급종사(325)	7.84	B	0.58		8.43	B
	F 값	27.87***		2.05		26.05***	

* p<.05, *** p<.001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종사자의 순으로 자녀돌보기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무급종사자 보다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무급종사자와 비교할 때 사업경영에 대한 책임이 보다 크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업무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은 근무시간을 연장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시간적인 융통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무급종사자에 비해 자녀돌보기를 위해 시간사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3. 제 변인이 자녀돌보기 시간융통성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

종사상지위가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융통성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가 다음의 <표 4>와 같다. VIF 값을 산출한 결과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돌보기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 근무시간, 무급종사자 가변수, 첫 자녀연령, 자영업자 가변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무급종사자인 경우,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 신체돌보기에서의 시간융통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 변인이 신체돌보기, 비신체돌보기, 기타돌보기 시간융통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신체돌보기		비신체돌보기		기타돌보기		돌보기 전체	
	B	β	B	β	B	β	B	β
첫자녀연령	-.163	-.131**	-.095	-.173***	.042	.093*	-.433	-.129**
어머니연령	-.110	-.208***	-.034	-.146***	-.022	-.116**	-.333	-.233***
교육수준	.064	.034	.074	.087*	.018	.026	.311	.061
근무시간	-.015	-.172***	-.006	-.153***	-.003	-.080*	-.048	-.199***
주택소유	.008	.002	.040	.025	.031	.023	.159	.016
직업	.012	.015	-.012	-.034	.012	.040	.024	.011
자영업	.520	.103**	.100	.044	.130	.071	1.500	.110**
무급종사	.580	.132**	.114	.058	.251	.157***	1.889	.159***
상수	6.979		2.165		0.992		19.111	
F 값	10.513***		9.502***		4.380***		13.59***	
R ²	11.4		10.5		5.1		14.3	

비신체돌보기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 자녀연령, 근무시간, 어머니연령, 교육수준의 순이었으며 종사상지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어머니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신체돌보기를 위한 시간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활동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사용의 융통성 이외에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자녀돌보기 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기타돌보기의 경우 무급종사자 가변수, 어머니 연령, 첫 자녀연령, 근무시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급종사자인 경우,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첫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타돌보기의 시간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사용가능한 시간량과 시간적 융통성이 많은 무급종사자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돌보기에서도 자녀돌보기를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기타돌보기의 시간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체돌보기나 비신체돌보기보다는 기타돌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어머니연령과 첫 자녀연령이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자녀연령의 응답가능 범위가 작은데 비해 어머니연령은 넓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보기 전체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어머니연령, 근무시간, 무급종사자 가변수, 첫 자녀연령, 자영업자 가변수의 순으로 자녀돌보기 시간융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연령이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무급종사자인 경우, 첫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자영업자인 경우 자녀돌보기를 위해 빈번하게 시간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시간융통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

해 무급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의 지위를 선택, 유지함으로써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연령, 첫 자녀연령 역시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녀돌보기의 빈도가 시간융통성이라는 측면 이외의 다른 영향요인이 있음을 말해준다. 즉, 자녀돌보기의 빈도는 시간융통성과 자녀돌보기를 위한 요구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시간융통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른 영향변인을 고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4. 종사상 지위와 유료의 자녀돌보기 서비스 이용

종사상 지위와 첫 자녀의 유료서비스 이용여부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료서비스 이용이 61.3%, 이용하지 않음이 38.7%로 이용하는 사례의 빈도가 기대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는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48.7%, 이용하는 비율이 51.3%로 이용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빈도가 기대값을 상회하였다. 특히 무급종사자는 이용하지 않는 비율(55.1%)이 이용하는 비율(4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하지 않는 사례의 빈도는 기대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aynes 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영업 및 무급종사자 집단의 기혼여성들이 시간적인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를 덜 이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무급종사자 집단은 유료서비스 이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에 비해 보조적인 지위에 있는 무급종사자의 경우 좀 더 전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무급종사자는 자영업 경영보다는 가정경영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며, 따라서 가사노동시간도 자영업자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표 5> 종사상 지위와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

	종사상 지위			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이용않음 빈도(백분율)	261 (38.7)	96 (48.7)	179 (55.1)	536 (44.8)
기대빈도	302.1	88.3	145.7	
이용 빈도(백분율)	413 (61.3)	101 (51.3)	146 (44.9)	660 (55.2)
기대빈도	371.9	108.7	179.3	
계	674(100.0)	197(100.0)	325(100.0)	1196(100.0) x ² =25.17***

*** p <.001

5. 제 변인이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이용 여부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

자영업 및 무급종사자라는 종사상지위가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사용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료 서비스 이용여부와도 관계가 있다면 이들 변인이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독립적 영향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하였다.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종사상지위, 기타돌보기, 비신체돌보기, 직업, 주택소유가변수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임금근로자인 어머니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는 유료의 자녀돌보기서비스를 이용할 승산이 54.3%(C.I.: 37.6%~78.5%)로 나타났다. 또한 무급종사자인 어머니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승산이 44.6%(C.I.: 32.5%~61.1%)였다. 결국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 및 무급종사자의 종사상지위를 지닐 때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는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기타돌보기 빈도가 높은 취업모는 유료의 자녀양육서비스를 이용할 승산이 249.0%(197.3%~314.2%)로 매우 높았다. 이에 비해 비신체돌보기 빈도가 높은 취업모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승산이 76.5%(66.0%~88.8%)로 낮아졌

다. 자녀와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와 같은 비신체돌보기에 빈번하게 시간사용을 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을 외부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양육을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돌보기의 두가지 활동인 기타돌보기와 비신체돌보기가 유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시간조사의 원자료에 기타돌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모는 전문,관리직에 종사하는 취업모에 비해 승산이 42.1%(24.5%~72.3%)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직업과 교육수준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고려할 때 높은 교육수준의 어머니는 보육시설에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주택을 소유한 취업모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취업모에 비해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승산이 73.1%(57.1%~93.5%)로 낮게 나타났다. 신혼가정에서 생애 첫주택을 소유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1개월("내집 마련 10년 걸려", 2004)임을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를 둔 가계의 경우, 주택소유와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어떤 다른 변수가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바가 없으며, 이는 통계

〈표 6〉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유료서비스이용 여부		추정계수 95%에 대한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승산비(Odds Ratio)	유의확률	하한	상한
연령	1.026	.146	.991	1.061
교육수준	1.071	.382	.918	1.250
근무시간	1.004	.237	.998	1.010
주택소유가변수	.731	.013	.571	.935
직업집단(참조수준)		.010		
직업집단(1)	.899	.664	.555	1.455
직업집단(2)	.818	.374	.525	1.274
직업집단(3)	.835	.492	.500	1.396
직업집단(4)	.421	.002	.245	.723
종사상지위(참조수준)		p<.001		
종사상지위(1)	.543	.001	.376	.785
종사상지위(2)	.446	p<.001	.325	.611
신체돌보기 유통성	1.013	.715	.945	1.085
비신체돌보기	.765	p<.001	.660	.888
기타돌보기	2.490	p<.001	1.973	3.142
상수	.637	.536		

*** p <.001

직업집단:(참조수준)전문,관리직, (1)사무직 (2)서비스,판매직 (3)기능,조립직 (4)단순노무직
종사지위:(참조수준)임금근로자 (1)자영업자, (2)무급가족종사자.

청의 생활시간자료에 가계경제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가 없었던 데 따른 연구의 한계라 할 것이다.

V. 결론

어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들은 자녀돌보기를 위한 책임과 직업역할을 병행해야 하므로 시간사용에 있어 많은 갈등을 갖는다. 이중역할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유통성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영업이 이들 기혼여성의 자녀돌보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어린자녀를 둔 취업모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보다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급종사자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집단에 비해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유통성 활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무급종사자보다는 임금근로자 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예상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급종사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형태로 경영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는 상이한 조건하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자영업자들은 사업경영을 주도해야 하며,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긴 근무시간이 요구되는데 비해 무급종사자는 사업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영역보다는 가정생활영역에서의 상대적 중요성을 더 높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유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가능한 자녀돌보기를 위해 시간사용을 하려고 할 것이다.

셋째,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종사상지위는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유통성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첫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신체돌보기를 위한 요구가 낮아지는 것과 같이 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수준이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 비신체돌보기 빈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시간유통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무급종사자와 자영업자인 취업모는 신체돌보기에 있어 시간유통성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급종사자인 취업모는 기타돌보기에서 시간유통성 활용이 높

았다. 신체돌보기, 비신체돌보기, 기타돌보기 모두가 자녀돌보기를 위해 이루어지는 동일 범주의 시간사용활동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는 무급종사자나 자영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선택, 유지함으로써 시간유통성을 활용하여 자녀돌보기의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사상지위와 자녀돌보기의 시간유통성 사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를 밝히므로써 자녀돌보기와 관련된 지원정책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녀돌보기를 위한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는 어머니의 종사상지위 그리고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유통성 활용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유통성 활용이 높을수록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유통성을 자녀돌보기의 빈도로 측정하는데 따른 것일 수 있다. 즉 자녀돌보기에 대한 요구나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 자녀돌보기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경우 유료서비스도 더불어 이용하는 경우를 추측할 수 있다. 즉, 유료서비스 이용이 어머니의 시간사용이라는 측면 이외에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녀교육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유통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녀돌보기 빈도 이외에 다른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자영업자라는 어머니의 종사상지위는 분명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녀돌보기 시간유통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업모는 외부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종사상지위가 갖는 시간유통성을 이용하여 자녀돌보기의 책임을 어머니의 직접 양육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어린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자영업 또는 무급종사자로서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사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사상지위 및 시간유통성 활용의 정도가 자녀돌보기 유료서비스 이용에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간사용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변인이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못한다거나 측정도구를 정교화하지 못하는 분석상의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선호, 자녀교육에 관한 가치관 등의 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므로써 종사상지위에 따른 자녀양육 환경조건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녀돌보기 서비스, 시간유통성, 자영업

참 고 문 헌

- 김순미, 이경희, 성지미 (2000)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보육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자녀보육의 형태와 지출비용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19-239.
- 김지경 (2004)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기관 이용과 기관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8), 65-76.
- _____ (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3-60.
- 유희정 (2003) 보육사업의 공공화 및 다양화 실행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3-06. 여성부.
- 한유미, 권정운 (2005) 스웨덴과 한국 보육시설의 질과 어머니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39-149.
- 허경옥 (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 시간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Avery, RJ, Haynes, DC, Haynes, GW (2000) Managing Work and Family: The Decision to Outsource Child Care in Families Engaged in Family-Owned Businesses.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3), 227-258.
- Belsky, J, Eggebeen D (1991) Early and Extensive Maternal Employment and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83-98.
- Bianchi, SM (2000) Maternal Employment and Time with Children: Dramatic Change or Surprising Continuity?. *Demography*, 37(4), 401-414.
- Blau DM, Robins, PK (1988) Child 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 374-381.
- Brandon, PD (1999) Income -Pooling Arrangements, Economic Constraints, and Married Mothers' Child Care Choices. *J. of Family Issues*, 20(3), 350-370.
- Caruso, G (1992) Patterns of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are for a Sample of Two Year Olds. *J. of Family Issues*, 13, 297-312.
- Cattan, P (1991) Child - Care Problems: An Obstacle to Work. *Monthly Labor Review*, 114(10) 3-9.
- Christensen, KE (1988) *Women and Homebased Work: the Unspoken Contract*. New York: Henry Holt.
- Connelly, R (1992) Self-Employment and Providing Child Care. *Demography*, 29(1), 17-28.
- Danes, Zuiker, Kean, Arbuthnot (1999) Predictors of Family Business Tensions and Goal Achievement. *J. of the Family Firm Institute*, 12, 241-252.
- Decarlo, Lyons. A Comparison of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Minority and Non-Minority Female Entrepreneurs.
- Fitzgerald MA, Winter M, Miller NJ, Paul J (2001) Adjustment Strategies in the Family Business: Implications of Gender and Management Role.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3), 265-291.
- Folk, KF, Beller, AH (1993) Part-Time Work and Child Care Choices for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46-157.
- Green E, Cohen, L (1995) Women's Business: Are Women Entrepreneurs Breaking New Ground or Simply Balancing the Demands of Women's Work in a New Way? *J. of Gender Studies*, 4, 297-314.
- Haynes, DC, Avery RJ, Hunts HJ (1999) The Decision to Outsource Child Care in Households Engaged in a Family Business. *Family Business Review*, 12(3).
- Haynes, DC (1997) The Determinationants of Fathers' Time Spent in Regular Child Care.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2, 51-58.
- Heck, RKZ, Saltford NC, Howe, B, Owen, AJ (1992a) The Utilization of Child Care by Households Engaged in Home-Based Employment.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213-237.
- Heck, RKZ, Winter, M, Stafford, K (1992b)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2), 187-212.
- Hofferth, SL, Brayfield, A, Deich, S, Holcomb, P (1991) *National Child Care Survey, 1990*.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Joesch, JM, Hiedemann, BG (2002) The Demand for Nonrelative Child Care among Families with Infants and Toddlers: A Double-Hurdle Approach. *J. of Populations Economics*, 15, 495-526.
- Kuhlthau, K, Mason, KO (1996) Market Child Care Versus Care by Relatives: Choices Made by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J. of Family Issues*, 17, 561-579.
- Longstreth, M, Stafford, K, Mauldin T (1987)

- Self-Employed Women and Their Families: Time Use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J.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5(3), 30-37.
- Loscocco KA, Robinson, J (1991) Barriers to Women's Small-Business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Gender and Society*, 5, 511-532.
- Presser, HB (1986) Shift Work among American Women and Child Car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51-563.
- Rowe, BR, Heck, RKZ, Owen, A, Stafford, K, Winter, M (1995) Homeworking Families and How They Make It Work. In RKZ Heck, AJ Owen, BR Rowe(Eds.), *Home - Based Employment and Family Life*, (pp. 107-134) Westport, CT: Auburn House.
- Salganicoff, M (1990) Women in Family Business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mily Business Review*, 3, 125-137.
- Tausig, M, Fenwick R(2001) Unbinding Time: Alternate Work Schedules and Work-Life Balance. *J.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2), 101-119.
- 내집마련 10년 걸려, 아파트 선호상승(2004, 11. 22) 연합뉴스. 자료검색일 2006, 2. 28, 자료출처 <http://credit.yahoo.co.kr/frame/yahoo/house/house07/house0701/house070101.html?id=578&start=0>
- (2006. 02. 03 접수; 2006. 05. 02 채택)